

“국내 해양생물 미세플라스틱 오염 심각”

굴·바지락·홍합, 갈매기·바다거북에서도 검출 김승남 “해양 쓰레기 종합처리시설 설립해야”

굴, 바지락, 홍합 등 국내 서식 해양생물의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25일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해양쓰레기의 80%는 플라스틱이었고, 2020년 한 해 동안 약 11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했다.

심각한 것은 마모된 플라스틱 쓰레기를 해양생물이 섭취, 결국 국민 식용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다.

‘해양 미세 플라스틱에 의한 환경위해

성 연구(2015~2020)’ 자료에 따르면 전국 12개 해안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굴과 담치(홍합)에서 1g당 최대 0.83개(평균값 0.33개, 검출률 96%)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

또 서해·남해 7개 해안 바지락에서 1g당 최대 1.03개(평균값 0.43개, 검출률 100%), 어류 6종에서 개체 당 최대 4.33개(평균 1.54개, 검출률 100%)가 검출됐다.

어패류 뿐 아니라 바닷새 11종 중 5종(바다비오리, 회색머리아비, 바다제비, 팽이갈매기, 바다쇠오리)의 소화관에서 도 플라스틱이 검출됐다. 실제 바다제비



의 경우 최대 20개의 플라스틱이 소화관에서 검출됐다.(검출률 42.1%)

이밖에 바다거북 폐사체의 83%에서 플라스틱이 검출됐는데 1개체에서 최대 229개의 플라스틱이 나오기도 했다.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커지자 해수부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부터 수거, 처리까지 관리 강화를 선포했지만 막상 플라스틱 쓰레기 처리는 환경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달리 미국은 2008년부터 어항에서 수거한 폐어망을 통해 회수한 에너지를 지역 주민에게 돌려주는 ‘진 에너지

(Fishing for Energy)’ 사업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2016년 기준 폐어망 1톤에서 한 가정에 25일 분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를 회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의 경우 폐스티로폼 부표를 활용한 보일리를 개발해 어촌에서 발생한 쓰레기로 재활용한 폐자원이 어촌 자체에서 순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해수부는 해양쓰레기 수거부터 처리까지 가능한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시설’을 설립해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책임감을 갖고 해양폐기물 절감 및 재활용에 앞장서야 한다”며 “나아가 표준화된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하고 해양생태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경찰관 1인이 29명 담당 이형석 “보호관 숫자 늘리고 지자체 연계해야”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예방 등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신변보호관 1인이 담당하는 보호대상이 평균 2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내실있는 신변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을)이 2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호대상 북한이탈주민 현황 및 신변 보호관 현황’에 따르면 2021년 9월 말 기준 신변보호 대상 탈북민은 ▲광주 403명 ▲전남 517명을 포함해 2만5천556명인데 반해 경찰 신변보호관은 ▲광주 21명 ▲전남 31명 등 모두 881명에 불과했다.

신변보호관 1인이 담당하는 보호대상자 숫자는 ▲광주 19명 ▲전남 17명 등으로 적게는 17명에서 많게는 39명(인천)으로 지역별 편차도



크데다, 북한이탈주민의 76%가 여성인데 반해 신변보호관 76%는 남성 경찰관으로 성별 역전 현상까지 겹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형석 의원은 “보호대상 탈북민 다수가 여성인데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범죄 피해 우려가 높아 이를 고려한 신변보호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경찰 자체 인력 확충뿐 아니라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탈북민 범죄 피해 예방과 지역 사회 정착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사직 내려놓은 이재명, 본선 중도공약 시동

‘용광로 선대위’ 구성 탄력 이낙연측 전진배치할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5일 경기도지사직을 내려놓고 본선 레이스의 출발선에 섰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여는 등 도민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도정을 마무리하는 절차를 밟았다. 공식적으로는 이날 밤 12시를 기점으로 사퇴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26일 곧바로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대선후보로서의 일정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대장동 정국 정면 돌파를 위한 경기도 국감 준비 등으로 본격적인 출발이 보름 가까이 늦춰진 만큼, 향후 스케줄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무엇보다도 민생·경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 행보에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국정감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는 정기국회가 새로운 주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 내에 ‘이재명표 정책’을 최대한 입법화, 전국적으로 확대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의 최대 장점으로 꼽히는 실행력을 부각, 현재 최대 고민거리인 중도확장을 모색하겠다는 전략이다.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본 시리즈’ 외에도 지역화폐 예산 확대, 소상공인·지역일자 손실보상제도의 보완, 플랫폼 사업자·업주 상생 정책 등이 주요 과제로 거론된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민생·균형발전



경기도청 떠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후 도청을 떠나며 직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했다. /연합뉴스

가치가 전면에서 나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를 정기국회 때 보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킬레스건인 대장동 정국 역시 ‘화천 대유 방지법’ 등 정책 행보로 돌파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이 제기되자 여러 차례 토건비리 척결과 개발이익 완전 환수 제도 도입 등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내부 정비도 여전히 숙제다.

이 후보는 전날 이낙연 전 대표와 2주 만에 화동함으로써 원팀 선대위 구성의

첫발을 뒀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는 “선거는 짧고, 정치는 길다. 정치도 짧고 인생은 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과정의 짧은 앙금을 털자는 원팀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다.

이 후보도 “같이 손을 잡고 나가자”고 제안하면서 회동을 마치고 손을 잡는 모습이 연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 측은 앞으로도 이 전 대표 측 의원들을 선대위 요직으로 대거 참여시켜 ‘용광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 전 대표 측 의원들도 선대위 참여

에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다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양측이 화학적 결합을 이루기까지는 여전히 장애물이 많다.

이 전 대표 경선캠프에서 정치개혁비전위원장을 맡았던 김종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이 후보의 공약인 기본소득이 전 대표의 공약인 신복지 정책의 조합과 관련해 “공약은 원래 당의 이름으로 가는 것”이라며 “경제 활성화, 서민지원 등 취지를 살려낼 수 있는 정책으로 복지와 병행하는 길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삼석, 현대삼호중공업 협력사 감사패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협력사협의회(회장 이안용)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영암대불산단의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이하 산업위지지역) 지정기간이 추가적으로 2년 연장되는데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2021년 5월 28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산업부의 재심사를 거쳐 2023년 5월까지 연장됐다.

서 의원은 지난 3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시 균특법 시행령은 1회에 한해서만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이미 한번 기간이 연장된 대불산단의 경우 재연장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령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서 의원의 개정안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총 기간 제한과 연장 횟수의 제한 없이 산업위지지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총 기간 5년의 범위에서만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어 지난 7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 위기까지 겹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역의 조선업 연관산업들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다”며 “산업위지지역 지정기간 연장의 효과가 실질적인 정부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안철수, KT사태에 “사이버 안보 먹통” 일침 “이런 수준이면 사이버 전쟁 백전백패”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5일 벌어진 KT 인터넷 장애 사태와 관련해 “KT ‘먹통사태’는 우리 사이버 안보의 먹통을 뜻한다”고 말했다.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인 ‘V3’를 개발한 IT 전문가인 안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이런 수준이면 사이버 전쟁에서 백전백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제 인터넷망은 있으면 편리하고 없으면 불편한 것이 아니다”라며 “잠시라도 불통이 되면 우리 몸의 실패줄이나 대동맥이 막힌 것처럼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갈수록 국가기간망들 순식간에 흔들려 버릴 사이버 공격의 대상과 수단이 확대되고 있다”며 “국가기간망 중반 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서비스는 어떤 공격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연결성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차원에서 국가기간망에 대한 방비와 개선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살 수 있도록 위협관리를 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이제 인터넷망은 있으면 편리하고 없으면 불편한 것이 아니다”라며 “잠시라도 불통이 되면 우리 몸의 실패줄이나 대동맥이 막힌 것처럼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갈수록 국가기간망들 순식간에 흔들려 버릴 사이버 공격의 대상과 수단이 확대되고 있다”며 “국가기간망 중반 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서비스는 어떤 공격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연결성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차원에서 국가기간망에 대한 방비와 개선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살 수 있도록 위협관리를 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www.e-dk.co.kr
DK 디케이 주식회사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